

지구촌 양계뉴스

●●● 일본

원전 20km내 소·돼지 살처분

일본 후쿠시마(福島)현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반경 20km 권역에 남아 있는 소와 돼지, 닭 등을 살처분하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이 지난 4월 24일 보도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주변 20km 권역은 일본 정부가 '경계구역'으로 정해 주민의 출입을 막은 지역이다. 경계구역으로 정했다고 가축을 죽일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하지만 사람이 돌보지 않아 가축이 죽으면 위생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살처분하기로 했다.

건강한 가축은 축사에 돌려보내고, 이미 숨진 가축에는 수산화칼슘을 뿌린 뒤 방수포를 덮어둘 예정이다. 이는 5월말까지 작업할 전망이다.

후쿠시마현은 이들 가축도 모두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해달라고 중앙 정부에 요청했다.

지난해 10월 현재 경계구역 안에는 소 4천 마리, 말 100마리, 돼지 3만 마리, 닭 63만 마리가 사육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도쿄=연합뉴스

●●● 태국

올해 식료품 수출 6.5% 증가

태국은 일본 대지진 등으로 올해 쌀과 닭고기 등 식료품 수출이 작년보다 6.5%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지난 4월 28일 보도했다.

태국 식량연구소(NFI)에 따르면 태국의 올해 식료품 수출 규모는 작년보다 6.5% 증가한 8천550억바트(약 30조 6천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암몬 나가몽콘랏 NFI 부소장은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일본내의 식량 생산 차질과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의 정세불안, 이상 기후 등으로 식량 수요가 늘면서 태국산 식료품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국은 올해 1분기(1~3월)의 경우 식료품 수출 규모가 2천220억바트(약 7조9천600억원)에 달해 작년 동기보다 8.5% 증가했다.

폐치 친나붓 NFI 소장은 "태국산 식료품의 최대 수출 시장인 일본이 전체 수출의 11%를 차지했다"며 "미국과 중국 등도 태국산 식품을 많이 수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 방콕=연합뉴스

미국

농무부, 올해 식품물가 3~4% 상승

미국 농무부가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의 가격 상승으로 미국 식품물가가 올해 3~4%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4월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농무부는 쇠고기 가격이 8%, 돼지고기가 7.5%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 3월 전망치보다 각각 2.5% 포인트, 1% 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이다. 닭고기 등 가금류와 생선 가격은 5~6% 오를 것으로 보았다.

어드밴스이코노믹솔루션의 빌 랍 사장은 “올 12월이 되면 전체 물가가 4~6% 상승할 것”이라면서 “식품 물가가 상승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15일 미 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3월 식품가격은 전월 대비 0.8% 상승해 2008년 7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전체 물가 상승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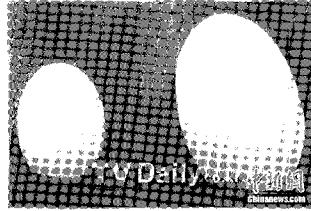
- 아시아경제

중국

10cm + 164g 수퍼맨 달걀 낳아 화제

중국에 엄청 큰 달걀이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다.

중화권 언론 매체는 “지난 4월 13일(현지시간) 중국 쓰촨(사천)성 광안화잉(광안화형)시에서 엄청 큰 달걀이 발견됐다”며 “이 달걀의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알은 길이 10.2cm, 직경 6.1cm, 무게 164g으로 보통 달걀보다 3배나 더 무게가 나간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알 낳는 것도 힘들었겠다”, “우량달걀이라 불러야 하나?”, “어메이징하군”이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 티브이데일리

톱스타 판빙빙 '삼계탕'으로 공개구혼 받아 화제



어 화제다.

최근 중국 우한(무한)시 중산공원 버스정류장에는 공개구혼 광고판이 붙었다.

광고판에는 “판빙빙님 제게 시집오세요, 저는 호화 주택도, BMW도, 다이아 반지도 없지만 당신을 위해 매일 삼계탕을 해드릴 수 있어요”라는 문구로 공개구혼을 하고 있는 한 남성의 모습이 걸렸다.

이 같은 광고는 현지 시민들에게 큰 주목을 받으며 중국의 여러 언론 매체에까지 보도됐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용기가 대단하네요, 응원할게요”, “삼계탕으로 미인을 얻을 수 있다면 세상에 남아나는 닭이 없을 것”이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또한 판빙빙의 소속사 측은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다”는 말과 함께 사랑에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이는 중국의 모 웹사이트가 펼친 광고의 일종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귀추를 주목했던 많은 누리꾼들에게 실망을 안겼다.

- 티비데일리

●●● 영국

돌연변이 달걀 출현



영국에서 돌연변이 달걀이 발견됐다.

지난 4월 20일 (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부활절을 맞아 할머니 집에서 달걀을 모으던 클로이 헤스비아드(15)는 우연히 크기가 작은 달걀 하나를 발견했다. 이 달걀은 3cm 길이로 평균 달걀크기 6cm의 절반 수준이다.

이 달걀은 영국 글로스터셔 마을에서 클로

이의 할머니가 기르던 닭 5마리 중 한마리가 낳았다.

클로이는 “달걀을 주우러 닭장에 들어갔다 가 너무나 작은 달걀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다”라며 “석고를 이용해 달걀을 오랫동안 보존할 것”이라고 말했다.

클로이의 할머니는 “작은 달걀을 보고 믿을 수 없었지만 분명히 달걀이 맞다”고 밝혔다. 또 현재 닭 5마리와 병아리 3마리를 기르고 있지만 이렇게 작은 달걀은 처음 본다고 덧붙였다.

이 사진을 본 영국의 누리꾼들은 “닭장이 너무 작아 닭이 초소형 달걀을 낳았다”라고 추측하거나 “혹시 메추리알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품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 파이낸셜뉴스

●●● 베트남

축산·사료산업 발전에 부정적 요소 많아

베트남 사료생산 기업은 사료원료 생산비용 증가와 수요 감소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 기존 사료원료 수입 재고량이 고갈되는 시점에서 높은 가격으로 사료원료가 수입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대체제품 및 국내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

2011년 베트남 사료가격은 사료원료 수입금액 증가에 따라 12~15%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축산업 종사자에게 더욱 부담이 될 것이라

고 한다. 대부분이 농가에서 손해를 보며 돼지 사료를 구매하며, 사료원료 수입금액 증가는 농가에서 부담하는 실정이다.

이에 축산청에서 정부수상에게 옥수수과 밀 수입관세를 현행 5%에서 0%, 카사바 수출관세를 5%에서 10% 인상안을 건의와 함께 사료 수입 기업에 우선적인 외화 제공을 제안했다.

축산업은 베트남 정부의 육성장려 사업으로 다양한 정부지원이 존재한다. 금리혜택, 세금 감면, 재정지원 등 각종 재정지원 정책을 통해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이에 따라 농업분야의 발전을 모색 중이다.

다만 사료원료의 높은 수입 의존도에 따른 가격상승 압력이 베트남 축산업계의 애로사항이다.

베트남 정부의 축산업 산업화를 도입해 경쟁력을 기르기 위한 노력을 꾀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적절한 발전 방향과 정책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 베트남 뉴스, 산업정보센터, 코트라 호치민 KBC 종합, 호치민코리아비즈니스센터 보고

대만

'H7N3 조류 바이러스' 첫 발생

대만 가금류 농장에서 H7N3 바이러스에 감염된 조류인플루엔자(AI)가 올해 처음 발생했다.

중국 영자신문 차이나포스트는 지난 4월 12

일 “대만 자이현 시커우향 오리 농장에서 H7N3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대만 행정원 농업위원회 동식물방역검역국(BAPHIQ) 쉬텐라이 국장은 “대만에서는 그간 철새 이동 지역에서 H7N3이 발견된 적은 있지만 가금류 농장 오리 표본에서 H7N3이 발견되는 것은 처음이다”라면서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인지 저병원성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H7N3 바이러스는 지난달 인근 토종닭 농장에서 H5N2 바이러스에 감염된 AI가 발생한 후 검역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쉬 국장은 이어 “자이현과 인근 지역의 농장을 즉시 격리하고 이동을 전면 금지했다”면서 “H7N3 조류인플루엔자의 감염 경로를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만 BAPHIQ는 이번 조류인플루엔자의 유행성 여부 확인, 샘플 채취 및 조사, 가금류 농장의 소독·살균을 실시한 뒤 세계동물보건기구에 이 내용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차이나 포스트는 전했다.

- 아시아경제